

#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3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

Q75.(회답) : 독도명칭은 19세기 말엽에 우산도로부터 돌섬으로 바뀌었고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석도(石島)이다. 돌섬이 방언으로 독섬이 되었고 그 이름이 독도로 바뀌었다. 독도(獨島) 명칭을 처음으로 기록한 문서는 1904년 9월 일본의 군함 니이다카(新高)의 항행일지였다.

## [해설과 비판]

이 문장은 타쿠쇼쿠대 시모조 마사오 교수가 썼다. 시모조 교수는 2006년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이 우산도-->석도(石島)-->독도라는 역사적인 독도의 명칭변천 과정을 주장했지만 이런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시모조 교수는 『동국문헌비고』(1770)의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그 근거가 된 『여지지』로부터의 인용문이 '일설에 의하면 우산, 울릉 원래 한 섬' 까지고 편집과정에서 그것이 '우산은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라고 바꿔 쓰였다는 주장을 다시 하고 있다. 이런 시모조 교수의 논리는 이미 '죽도문제연구회의 왜곡-1, 2'에서 충분히 비판했다. 그러니 '우산도=송도=독도'라는 한국 측 명칭 방정식은 충분히 성립된다.

그리고 시모조 교수는 또 하나의 방정식 '석도=독도'를 부정한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서 '독섬'의 한자표기가 '석도'와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을 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면 다음과 같다.

1883년 이후 울릉도 이주정책이 실시되어 주로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전라도 방언으로 '돌'이 '독'으로 변하기 때문에 '돌섬'은 '독섬'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는 1900년 '돌섬'을 한자로 표기하여 '석도(石島)'라는 명칭을 칙령 제41호에 기록했고 '돌섬'은 전라도 방언으로 '독섬'이 되어 마지막에 '독도(獨島)'로 변했다. 1904년 9월25일 일본의 군함 '니이다카(新高)'가 항해일지에 '한인이 이 섬을 독도(獨島)로 쓴다'라고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명칭을 정확히 기록했다.

시모조 교수는 1883년 울릉도검찰사로 울릉도로 파견된 이규원이 '울릉도외도(鬱陵島外圖)'에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에서 동쪽 2km거리에 있는 죽도(죽서도)와 울릉도 북동에 있는 도항(島項 : 현재의 관음도)만을 기록했고 1900년 시찰관 우용정과 재한 부산영사관의 아카쓰카 쇼스케(赤塚正助)가 제출한 '울릉도 산림 개황(概況)'의 첨부지도에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죽서도와 도항(島項), 그리고 공암(孔岩)만을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석도'란 도항을 가리키는 명칭이며 한국이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우선 석도가 '도항'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00년10월25일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도군을 설치하여 그 범위를 '울릉도전체, 죽도(죽서도), 석도'라고 했는데 시모조 교수는 이 문서에 나온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 '도항(관음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당시의 도항(島項)은 현재 관음도(觀音島)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먼저 일

제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이 섬을 관음기(觀音崎)라고 불렀다. 즉 도항을 섬이 아니라 곳으로 보았다는 얘기다. 그만큼 도항과 울릉도 사이는 가깝고 20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일본인들 자체가 도항을 독립된 섬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현재는 울릉도에서 도항(관음도)까지 다리가 만들어졌고 쉽게 울릉도와 도항 사이를 왕래할 수 있다.

‘도항’이라는 명칭의 한자표기를 보면 도(島)의 항(項), 즉 ‘섬의 목덜미’라는 뜻을 갖고 있고 ‘도항’이란 명칭자체가 섬이라기보다 울릉도의 목덜미, 즉 울릉도의 곳이라는 뜻이었다. 그것을 섬으로 분류한 사람은 1882년 검찰사로 울릉도에 파견된 이규원(李圭遠)이 처음이다.

1882년 울릉도 이주정책을 결심한 고종(高宗)은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시키기 위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 파견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규원이 울릉도로 가기 전에 고종과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고종은 “울릉도란 세 섬이다. 울릉도, 송국도(죽서도), 그리고 우산도다”라고 하여 우산도(=독도)를 거론했다. 고종은 『만기요람』(1808)을 애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국문헌비고』(1770)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 즉, ‘여지지가 말하기를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즉 왜가 말하는 송도(=독도)다(輿地志云 鬱陵于山 皆于山國地 于山則倭所謂松島也)’라는 내용을 『만기요람』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종은 이때 18년 후에 자신이 반포할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울도군의 범위를 미리 말한 것이다. 즉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울도군의 범위는 ‘울릉도전체, 죽도(죽서도), 석도’였는데 1882년 고종은 울릉도의 범위를 ‘울릉도전체, 송죽도(죽서도), 우산도’라고 미리 예시했다.

그런데 이때 이규원이 “우산도란 울릉도의 옛 명칭”이라고 주장했다. 그것도 조선시대 초기에는 맞는 얘기였다. 그러니 그 역사도 아는 고종은 울릉도에 대해 다

시 말하면서 “울릉도란 우산도(=울릉도), 죽도(죽서도), 송도(독도)”라고 수정했다. 이때 ‘우산도’라는 『세종실록 지리지』가 확립시킨 독도의 옛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고종이 정정한 말에 의하면 독도를 일본 명칭인 ‘송도’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이주정책으로 울릉도로 이주한 조선인들이 독도를 ‘돌섬’으로 부르기 시작해 그것이 중앙에서는 ‘석도’가 되어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되었고 1904년에는 ‘독도’라는 명칭이 일본군함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1882년 울릉도로 건너간 이규원이 고종이 말한 ‘우산도’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다. 성인봉 정상에도 올라가 이규원이 사방을 바라보았지만 우산도(=독도)를 볼 수 없었다. 흐린 날씨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우산도란 울릉도의 별칭이다. 제주도를 담라섬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결론을 내리고 본토로 돌아왔다. 이규원이 울릉도의 속도 수색기록을 ‘울릉도외도’로 집대성시켰다. 그러므로 이규원은 우산도를 찾고 싶은 나머지 그 당시까지 일본이나 조선에서 섬이 아니라 곳으로 인식되어 온 ‘도항’을 섬으로 승격시켜버렸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석도와 ‘도항’은 별개의 섬이다. 왜냐하면 이미 도항은 도항이라는 명칭 뿐만이 아니라 관음기, 관음도, 등의 명칭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00년 칙령 제 41호 속에 ‘도항’을 애매하게 ‘돌섬’ 즉 ‘석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즉 1900년10월25일 반포된 고종황제의 명령인 ‘칙령 제41호’ 속에 기록된 ‘석도’는 ‘도항’이 아니라 1882년 고종이 미리 예시한 ‘우산도’ 즉 ‘독도’인 것이다.

